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푸미족

Pǔmǐzú

普米族

편자 응덕정

역자 림금산



로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林锦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普米族：朝鲜文 / 熊德鼎编；林锦山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2-9

I. ①普… II. ①熊… ②林… III. ①普米族—民
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6.6-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215980 号

普米族

PUMI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 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 年 9 月第 1 版

印刷时间：2014 年 9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52-9

定 价：18.00 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녜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다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푸미족개황

- 천지개벽에 관한 전설 /11
- 해와 달에 관한 전설 /13
- 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15
- 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17
- 푸미족문자에 관한 이야기 /19
- 푸미족의 창세기 옛노래 /21

제2장 푸미족의 생활풍습

- 돌, 말뚝, 결초 및 토지 /29
- 세습추장에 관한 이야기 /31
- 녀인이 귀걸이, 팔찌를 착용하게 된 유래 /33
- 옷에 단추를 달게 된 유래 /35
- 사냥을 하게 된 유래 /37
- 푸미족농경에 관한 유래 /39
- 쭈리마주에 관한 이야기 /41
- 귀틀집에 관한 전설 /45
- 푸미족이 철삼각받침대에 제를 지내게 된 유래 /47

제3장 푸미족의 혼인과 가정

제4장 푸미족의 종교신앙

푸미족이 불경을 구해온 전설 /53

“르정”의 유래 /55

룡왕신에게 제를 지내게 된 래력 /57

한규교의 유래 /59

제5장 푸미족의 세시풍속

정월 초하루 물을 길게 된 전설 /61

성인례의 유래 /63

산나들이절에 관한 전설 /65

제6장 푸미족의 민간문예와 체육경기

사현금의 래력 /67

피리에 관한 전설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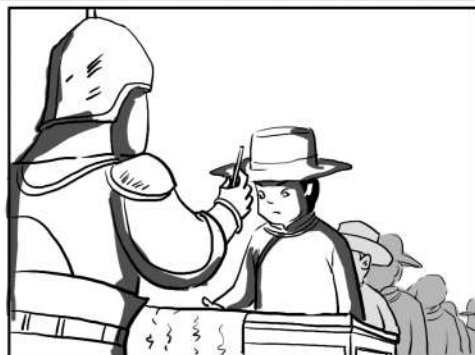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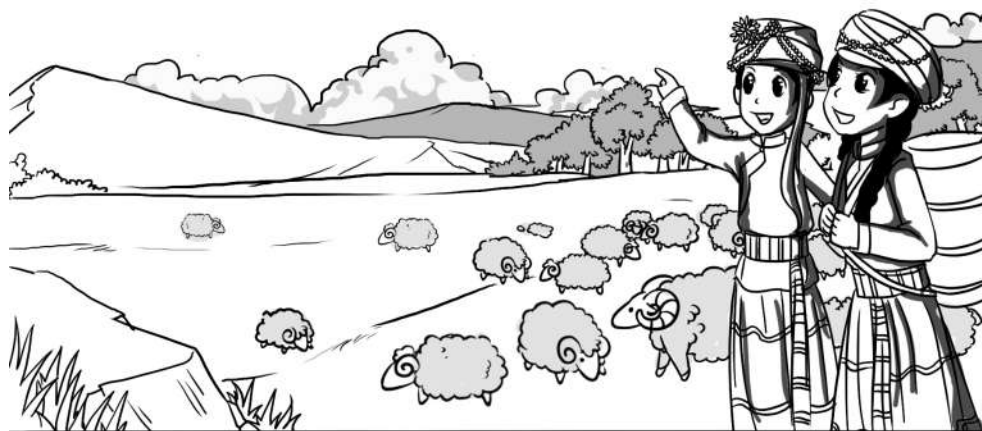
취취무의 래력 /71

경마의 유래 /73

제7장 푸미족의 문학예술

충거싸에 관한 전설 /75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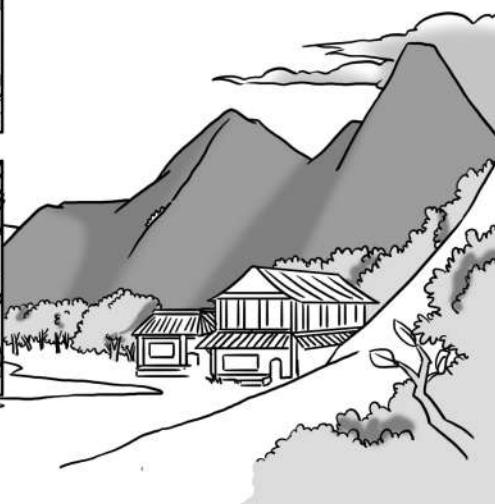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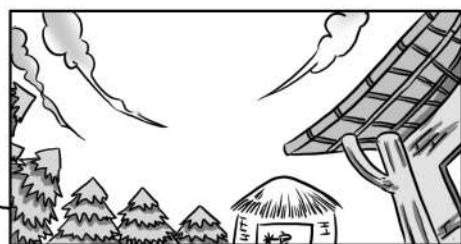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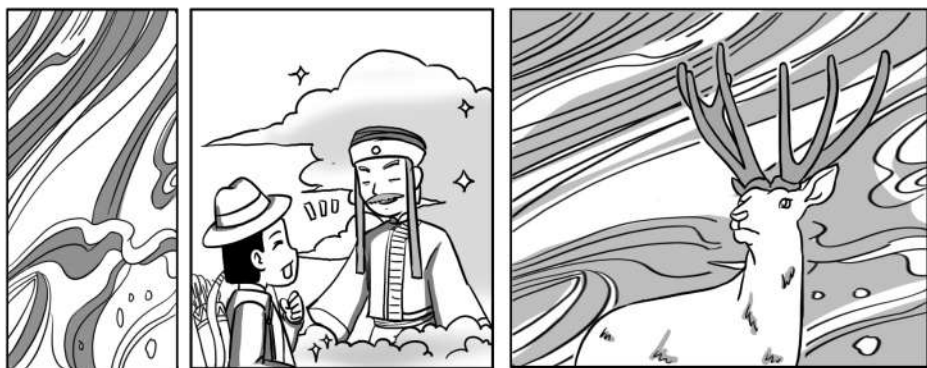
제1장 푸미족개황

푸미족은 우리 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와 오래된 문화를 갖고있는 민족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서번(西番)” “파저(巴苴)”라고 불리웠고 “푸잉미(普英米)” “푸미르(普米日)” “페미(培米)” 등으로 자칭하였으며 새중국이 건립된후 통일적으로 푸미족으로 칭하였다. 그 명칭의 유래는 본 민족의 종교도토크, 심미심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푸미족들은 자고로 “흰(白)”것을 선과 미로 간주하였다. “푸미(普米)”에서 “푸”는 “흰”것을 뜻하고 “미”는 사람을 뜻하는바 “푸미”는 곧 “백인(白人)”을 가리킨다.

푸미족은 주요하게 운남성 서북부의 노강주(怒江州) 란평(兰坪)바이족푸미족 자치현, 려강시의 녕탕(宁蒗)이족자치현, 옥룡나시족자치현, 영송현과 디칭(迪庆)장족자치주의 유서(维西)리수족자치현, 상그릴라현 등지에 거주하고있으며 그외 사천성 서남부의 목리(木里), 염원(盐源), 구룡(九龙) 등 현에도 분포되어있다. 2000년 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에 따르면 푸미족의 총인구는 3만여명이다.

푸미족은 고대의 저창족(氐羌族)과 연원관계를 갖고있다. 본 민족의 전설과 역사문헌기재에 따르면 대략 선진(先秦)시기에 푸미족의 선조들은 오늘의 청해, 감숙과 사천의 접경지대에서 방목하면서 살아왔다. 후에 그들은 더욱 쾌적한 생존의 락토를 찾아 양떼를 몰고 횡단산맥을 따라 점차 남방의 따뜻한 곳으로 천이하였다. 13세기중엽에 일부 푸미족들은 원군(元军)에 징집되어 원세조 쿠비라이(忽必烈)를 따라 운남에 진입하였다. 이때로부터 푸미족의 선조들은 점차적으로 “물과 풀을 따라 천이”하는 유목생활을 접고 광활한 횡단산구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천백년이 지나도록 푸미족들은 줄곧 북방을 그리워하였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러서도 푸미족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중에는 여전히 상고시기 유목민족의 유풍(遗风)을 보류하고있다.



푸미족은 고대 서북유목민족의 후예로서 그들의 생활속에서 수렵문화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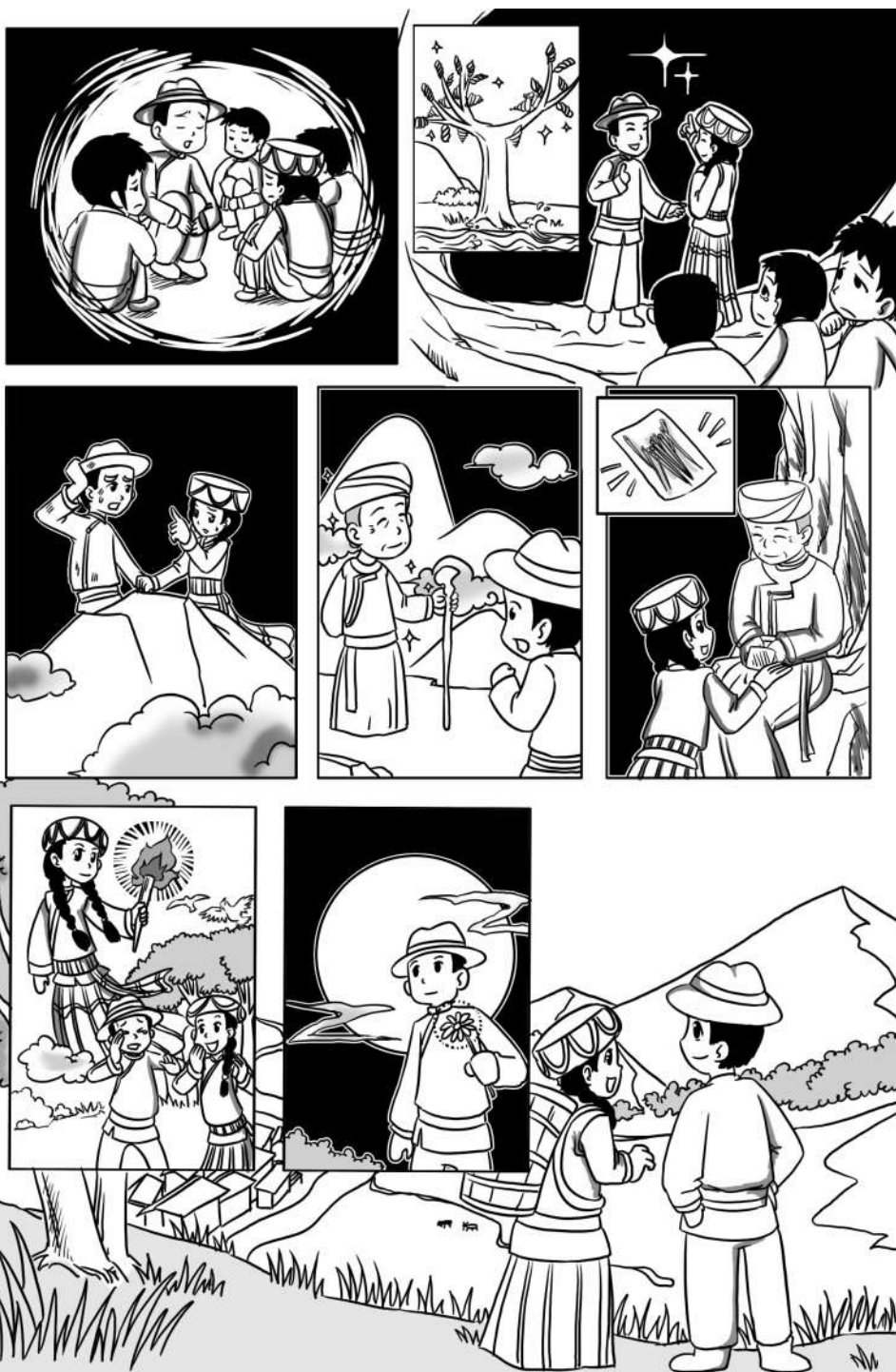
천지개벽에 관한 전설

전하는데 의하면 상고시기에는 만물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고 일월성신(日月星辰)도 없었다. 지싸이지(吉赛吼)라는 젊은 사냥꾼이 있었는데 천신이 그를 파견하여 천지개벽을 하게 하였다. 천지개벽을 하려면 우선 나쁜짓만 일삼는 고라니(马鹿)를 소멸해야 했다.

고라니는 바람을 따라잡는 재능이 있고 단단한 뿔은 하늘을 찌를수 있으며 울부짖는 소리는 대지를 기울게 하고 인간세상을 천지를 분별할수 없게 만들며 산천을 모호(模糊)하게 하였다. 사냥을 떠나기전에 지싸이지는 9층 하늘에서 9색 사냥개를 데려왔다. 9색 사냥개는 고라니의 발자국을 냄새맡으며 지싸이지를 인도하여 산을 넘고 재를 지나 49일만에 거대한 자금삼나무(紫金杉树)아래서 고라니를 찾아내었다. 지싸이지는 활시위를 당겨 고라니를 쏘죽였다.

지싸이지가 칼을 휘둘러 고라니의 머리를 잘라내자 머리는 푸른 하늘로 변했고 이발은 별로 변했으며 눈은 해와 달로 변하였다. 지싸이지가 고라니의 몸통을 가르자 고라니의 심장과 간은 군산과 협곡으로 변했고 창자는 강과 도로로 변했으며 골격은 지맥(地脉)으로 변했고 담은 무지개로 변했으며 피는 룡담호수와 바다로 변했고 털은 초목으로 변했으며 가죽은 광활한 대지로 변했고 가죽의 반점은 가축떼로 변했으며 특골은 양식창고로 변했고 뿔은 집의 기둥으로 변했으며 꼬리는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청송으로 변하였다.

사냥꾼 지싸이지는 고라니를 소멸하고 천지의 질서를 회복하여 만물에 생기를 부여하였고 인류에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해와 달에 관한 전설

상고시기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없었고 대지에는 화초수목이 없었으며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바다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집에는 오빠 넷과 녀동생만 있었다. 그들 다섯은 해해년년 암흑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어느해, 멀고먼 동방에서 갑자기 미약한 빛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원래 그것은 망망한 바다가의 한그루 소라나무(海螺樹)가 꽃을 피운것이였다. 신기한 소라나무는 만년에야 한번씩 꽃을 피우는데 꽃이 필 때는 밝은 금빛을 뿌리고 꽃이 지면 빛도 사라진다.

이 미약한 빛은 암흑속의 오누이들에게 무한한 희열과 동경을 가져다주었다. 녀동생이 동방으로 가 금빛을 채집하여 암흑한 대지를 비추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넷째와 녀동생은 형, 오빠들과 작별하고 금빛을 찾아 집을 나섰다.

오누이는 암흑속에서 기여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첩첩한 간난신고를 극복하고 끝내 한 큰 산의 봉우리에 기여올랐다. 앞은 천길나락이여서 갈길이 없었다. 바로 그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백발의 할머니가 그들앞에 나타났다. 오누이가 이 길에 오른 목적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들의 끈질김에 감동되었다. 할머니는 자기가 바로 암흑속의 인간세상에 빛을 가져다줄수 있는 사람을 찾고있던중이라고 알려주면서 기왕 오누이가 이 임무를 맡기를 원하니 지금부터 오빠는 낮에 대지를 비춰주고 녀동생은 밤에 대지를 비춰주라고 하였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녀동생이 급히 자기는 밤에 나오기가 무섭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녀에게 낮에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녀동생은 또 자기는 낮에 나오기가 부끄럽다고 말하였다. 할머니는 그녀를 위로해주며 말하였다. “너에게 자수바늘 한봉지를 줄테니 누가 감히 너를 쳐다보면 자수바늘로 그 사람의 눈을 찔러라.”

할머니는 녀동생에게는 불을 한다발 주고 오빠에게는 은백색의 꽃 한송이를 주었다. 이때로부터 녀동생은 금빛찬란한 해가 되어 낮이면 나와 빛을 뿌렸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쳐다보면 자수바늘을 뿌려 그 사람의 눈을 찔러주었다. 그리고 오빠는 은빛으로 빛나는 달이 되어 밤이면 나와서 은빛을 뿌렸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게 되자 대지에도 낮과 밤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간세상에 화초수목과 날짐승, 들짐승이 생겨나 대지는 생기로 차넘치였다.



푸미족신화이야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천신이 부여하였고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며 지금 푸미사람의 몸에는 하늘신선의 피가 흐르고있다고 말한다. 푸미족남성들은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기를 좋아한다. 광대하고 심오한 하늘은 푸미족들의 정신적고향이다.

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상고시기에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가는 곳마다 사품치는 홍수였다. 몇몇 세기가 지났을가, 물밑에서 큰 개구리 한마리가 생겨났는데 그 개구리가 물을 힘껏 들이마시자 모든 홍수는 말라버렸다. 이때로부터 점차적으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일월성신과 춘하추동 사계절이 생겼다.

또 몇몇 세기가 지났을가, 해의 아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방(九方)을 개천하고 달의 딸이 힘을 들여 팔방을 벽지(辟地)하여 비로소 천지가 모습을 갖추었다. 천신이 보니 지상이 황량하고 인적이 없으므로 지상에 종자를 한줌 뿌렸다. 이때로부터 대지에 사람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겼다.

그때의 푸미족은 동물과 별다른 구별이 없었다. 후에 개구리가 그들을 도와 지혜의 물을 마시게 해서야 그들은 점차적으로 총명해졌다. 그때의 푸미족은 바위굴이나 나무굴에서 살았다. 후에 그들은 산개미들이 수목을 끌어다 굴을 짓고 산비둘기들이 나무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트는것을 따라배워 목재와 풀로 집을 지었다. 그때의 푸미족은 여전히 농사를 지을줄 모르고 야생과실을 채집하여 먹고살았다. 그러다 흙을 파고 뛰지는 산꿩들이 그들에게 땅을 갈고 파종하는것을 배워주었다. 그때의 푸미족은 입을 옷이 없어 나무잎이나 짐승가죽으로 몸을 가리웠다. 그러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는것으로 그들에게 실을 뽑고 천을 짜는것을 배워주어 삼베, 양털로 옷을 짓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푸미족은 오산사해(五山四海) 어디에서나 살수 있게 되었다.



푸미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사품치는 홍수가 물러간후 대지에는 총각 파송지(巴松吉)만 남고 녀인은 없었다. 파송지는 산굴에 살면서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다. 해는 떴다가 지고 꽃은 피었다가 스러지는 사이 파송지는 몹시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녀성동반자를 찾아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분담해주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세상에는 녀인이 없으니 어디가서 찾는단말인가? 태양신이 그의 심사를 알고 천신 무뎡파(木多丁巴)의 딸 뽀지두마(洛吉笃玛)를 속세에 파견하여 파송지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몇년이 지났다. 하지만 뽀지두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 부부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들은 산에 오르고 바다를 누비며 아이를 낳게 할수 있는 약을 구하였다. 이 부부의 심사를 들보에 서식하고있는 박쥐가 날날이 들여다보았다. 박쥐는 하늘에 날아올라 천신 무뎡파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신이 말했다. “뽀지두마는 속세에 가자마자 우리를 잊어버렸다. 만약 애가 생기면 더더욱 우리를 보러 오지 않을것이기때문에 그에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이라도 그녀가 인간세상의 레물을 갖고 하늘에 올라와 우리를 만나주면 그녀에게 애 넷을 낳게 해줄 것이다.” 박쥐는 천신의 이 말을 부부에게 전해주었다. 하여 뽀지두마는 많은 레물을 갖고 하늘에 올라가 사흘간 묵고 속세로 돌아왔다. 이듬해 그녀는 건실한 아들을 낳았고 그후 3년간에 또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런데 아들 넷은 커서도 말을 할줄 몰라 이번에도 박쥐가 천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천신이 박쥐에게 말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길일을 택해 아이들에게 산에 올라 뽀나무를 해오게 한후 사람을 파견해 말을 순무우밭으로 몰아넣으면 아이들은 말을 할수 있게 된다.”

파송지부부는 천신의 분부대로 하였다. 산에서 아들 넷은 말이 순무우를 뜯어 먹는것을 보고 몹시 조급해서 각각 한마디씩 웨쳤다.

만이가 웨쳤다. “다니용마서(达尼永马舍).” (장어)

둘째가 웨쳤다. “광니넌궁주(光尼念共祖).” (푸미어)

셋째가 웨쳤다. “란니아컨카(冉尼阿肯卡).” (머쑤어)

넷째가 웨쳤다. “마자이즈만징(马在吃蔓菁).” (한어)

말이, 둘째와 셋째가 웨친 말은 넷째가 웨친 말과 같은 뜻이었다. 이때로부터 4형제의 후대들은 4개 민족 즉 장족, 푸미족, 나시족(머쑤인, 摩梭人), 한족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줄곧 형제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집식구처럼 서로 다녔다.